



2024년 2월 11일(제1180호) 연중 제6주일(세계 병자의 날)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하느님이리는 공동체를 향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 입니까? 바로 아플 때입니다. 병을 겪는 이의 고통에 대해 아무도 무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큰 고통에 빠졌어도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을 때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병 환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는 사회적·종교적으로 죽은 이의 취급을 받은 이로, 그와 그 공동체 또한 나병 환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공동체와 생이별을 하여 평생을 죽은 이로 살아가야 하는 이, 그러한 이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 과정은 예수님과 나병 환자 그리고 그를 둘러싼 공동체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나환자의 상황입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의 하느님의 법을 어기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나병 환자에게 병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의 고통을 아시기에 ‘가없는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셨습니다. 둘째, 존재론적 죽음에서 구해주셨다는 점입니다. 떨어져 나간 사회적 죽음에서 다시금 존재론적

으로 공동체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단순한 육체적·존재론적 치유를 넘어, 죄와 병에서 Exodus(벗어남) 하여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선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이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과 두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할 두려움과 고통을 이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써보셨으면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께 다가오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 함께 보내는 한 주간을 살아가 봅시다. 또한 세상의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세계의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주경환(십자기의 요한) 신부
충장(육군 제31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특 시

레위 13,1-2.44-46

회 답 송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제 2 특 시

1코린 10,31-11,1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 음

마르 1,40-45

영 성 제 송

그들은 실컷 먹고 배불렀네. 주님이 그들의 바람을 채워 주셨네.

그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으셨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열두 번째 시집

그 후 다시 재판관이 호출하여 “네가 정말 죽기를 바라느냐?”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요한은 “저도 다른 이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죽기를 사양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재판관이 크게 분노하여 곤장과 편태의 가공할 만한 형벌을 명하면서 말했습니다. “너의 종교를 위해 죽겠다는 말이 참말이라면 네가 죽을 때까지 치도록 하마.”

요한의 몸은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가 드러났으나,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붙은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용약하였습니다. 그는 지겹게도 21차례나 문초를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모질게 고문을 당하였는지 살과 가죽이 헤져 창자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으며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문초 중에 당한 형벌 외에도 포졸들과 악당들에게 온갖 폭행을 다 당하였습니다.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고, 음력 1839년 7월 29일에 목이 잘려 29세의 나이로 순교하였습니다. 그가 천국으로 개선하는 마당으로 내려갈 날이 밝아 왔을 때 그는 기쁨의 표시로 자기와 옥사쟁이들에게 작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영광스럽게 최후의 형장으로 끌려 나갈 때에 그동안 옥살을 펴붓고 매질하고 형벌하던 포졸들과 백성들이 그를 뒤쫓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와 작별하였습니다.

다른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무척 많으나 아직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때에 신부님께 더 자세히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후 여기서 700리 떨어진 새 교우촌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 교우촌은 귀양간 어떤 신자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 최근에 교우촌을 형성한 곳입니다. 그 신자가 사람을 보내 선교사 사제를 모셔 오도록 청한 것입니다. 제가 이 교우촌을 방문하고 나서 혹시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신부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집』 발췌, 청주교구 양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쉬어도 괜찮아



뒤축이 닳아
물이 새 정도로
정신없이 뛰었다.

책임감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쉬어도 괜찮아.

이만하면 충분해.
천천히 가도 충분해.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10명의 나병환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예수님 생애를 그린 필사본의 한 부분 / 직지 미상, 제작연대 대략 1487년 ~ 1490년
벨기에 브뤼헤 미술관 소장

전경의 왼편에는 10명의 나병환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있다.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찬란한 빛(후광)이 빛나고 있으며, 오른손을 들어 이들을 축복하고 계신다. 후경에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이제는 치유된 나병환자 한 명의 모습이 보인다.

예수님께서 기없는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마르 1,41-42)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6주일: 불상대(옥군) 김지훈 신부

◆ 교구장 통정

- 교구민을 위한 교구장 집전 미사

때·곳: 2월 11일(주일) 11:00,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 제27회 가톨릭미술상 시상식 및 미사

때·곳: 2월 15일(목) 16:00, CBCK

- 군중후원회 전국 총회

때·곳: 2월 16일(금) 11:30, 군중교구청

“환해와 치유를 위한 고해성사의 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1요한 1,9)